



아시아 최대 2014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 개최 사진·영상 관련 제품·콘텐츠 코엑스에 총집결

아시아를 대표하는 사진영상축제인 '2014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이 오는 4월 17일(목)부터 20일(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 A, B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Photo & Travel, Photo & Optics, 제3회 대한민국사진축전, P&I Movie Zone, 6th SEOUL PHOTO 등 5개 전시회와 동시 개최된다.

자료제공 |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

올해 23회를 맞는 PHOTO & IMAGING 2014는 코엑스,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한국사진영상기자재협회가 주최하며, 141개 업체(기관)가 680부스 규모로 참가해 300여개 브랜드를 선보인다. 삼성전자, 캐논, 니콘, 세기P&C, 소니, 한국후지필름, 파나소닉 등 사진영상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이 참여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진행됐던 국내의 사진촬영 명소와 지역관광을 연계한 'Photo & Travel'은 올해도 계속된다. 올해는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가평군, 단양군 등 국내 지자체와 호주 빅토리아주, 인도, 태국, 일본, 말레이시아, 알래스카 관광청 등 해외 지역에서 사진전 및 이벤트 등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각 브랜드별 최신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P&I SNS 3분 영화제 ▲광학기술(Photo&Optics) 특별전 ▲P&I PHOTO BOOK Fair ▲P&I 세미나 ▲P&I Movie Zone 세미나 ▲2014 봄사진촬영대회수상작 전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홍보행사 ▲유니세프 특별 사진전 ▲100년의 라이카 프레쇼 ▲주한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의 10대 사진촬영 명소 사진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돼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사진기자재전은 2002년 국내 최초로 국제전시연맹(UFI)으로부터 국제전시인증을 받았으며, 13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 유망전시

회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하에 해외 바이어 마케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P&I SNS 3분 영화제

SNS 3분 영화제는 스마트&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영상미디어 작가를 발굴한다는 취지에 시작된 온라인 영화제다. 국내외 학생 및 일반인이 참여해 네티즌(60%)과 심사위원 평가(40%)로 수상작이 선정된다. 올해 SNS 3분 영화제는 자유주제로 단편 드라마, 뮤직비디오, 스톱모션, Autodesk VFX Award 등 4개 분야를 공모한다. 시상식은 전시회 기간에 맞춰 오는 4월 19일 P&I 특별 상영관(B홀 R21)에서 열린다.

본선 진출작은 심사기간인 4월 1일부터 15일 까지 네이버 TV캐스트 P&I SNS 3분 영화제 상영관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광학기술 특별전

3D 프린터, HMD (Head Mounted Display) 등 최근 상용화되기 시작한 첨단 기술 제품을 A홀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외부가 투명 케이스로 처리돼 있어 프린팅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가정용 프린터와 높은 정밀도를 유지하면서도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국산 3D 프린터를 만나볼 수 있다.

지난해에도 선보인 바 있는 HMD(Head Mounted Display) 제품은 올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체험 가능하다. HMD란 안경처럼 머리에 쓰고 대형 영상을 즐길 수 있는 영상 표시장치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에 저장된 영상을 눈앞의 40인치 이상 대형 가상 화면에서 구현해주는 안경

형태의 모니터다. 외부로부터 완벽한 독립이 가능해 프라이버시 및 보안 유지에도 탁월하며, 도서관,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는 물론 침대와 같은 누운 자세 및 빛이 강한 야외환경에서 영화를 감상할 때도 효과적이다.

P&I PHOTO BOOK Fair

'P&I PHOTO BOOK Fair'는 국내 20여개 주요 사진 출판사들이 시기별, 분야별 대표 사진집을 소개하는 전시다. 사진가의 공력이 담긴 사진집, 서점에서 만나보기 어려웠던 사진집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진 이론 및 역사서에서부터 실용서, 여행서까지 분야별 대표 사진집이 총망라돼 전시된다.

100년의 라이카 프레쇼

오스트리아 빈의 옥션회사 베스트리히트는 '100년의 라이카' 사진경매 프레쇼를 B홀 서울포토 행사장 내에서 진행한다. 올해 100주년을 맞는 라이카 공식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5월 23일 독일 베프라에서 개최되는 사진경매 프레쇼다.

이번 프레쇼에 출품되는 카메라와 사진은 최저 낙찰가가 30만~40만 유로로 한화 6억원에 가까운 물품들이다. 행사를 주최하는 오스트리아 빈의 옥션회사 베스트리히트는 지난 2012년 5월 Leica 0-Serie를 출품해 역대 카메라 경매 사상 최고가 210만6000유로(한화 약 31억 6천 만원)의 낙찰 기록을 가지고 있다.

'100년의 라이카' 사진경매에는 카메라 50점, 사진50점이 출품된다. 라이카의 전신인 라이초사의 첫 카메라 상품인 Leica I 을 비롯해 Leica M3의 시험제작 원형, 세계적인 사진작가이자 라이카 애용자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국제적으로 유명한 자유보도사진작가단체 매그넘 소속 작가인 르네 브리, 아바스, 브루노 바베이, 엘리엇 얼윗의 사진과 그들의 카메라가 출품될 예정이다. 또한 100년의 라이카 역사를 다각도로 조명할 '100 years of LEICA' 장정본 도록도 한정판매할 예정이다.☞



2014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에는 141개 업체가 680부스 규모로 참가해 300여개 브랜드를 선보인다.